



- SPECIAL EVENT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추가 이벤트!
이벤트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분께
에이조 대형 마우스 패드를 증정해 드립니다.



FlexScan EV2410R



WUXGA 24.1" (1920 x 1200)
16:10 비율 | 3면 베젤리스 디자인
다양한 장비 호환성 | D-Sub mini
Display Port, HDMI, DVI-D

EVENT 사은품 증정!



SALE 605,000원



FlexScan EV2720S



WQHD 27" (2560 x 1440)
USB Type-C | 70W 전원 공급
HDMI, Display Port | 생산성 향상
오토 예코뷰 | 눈 건강 인증 제품

EVENT 사은품 증정!



SALE 935,000원



ColorEdge CS2400R

FHD 24.1" (1920x1200) | 16-bit LUT | EIZO 특허 DUE
sRGB 100% | ColorNavigator S/W

EVENT 사은품 증정!



SALE 1,100,000원

NEW 신제품 "사진 스튜디오 전용 제품"



전 세계 유명 사진가, 전문가의 인정

전 세계 43인의 에이조 월드 앰버서더 중
한국 국적의 월드 앰버서더는 단 2명
권오철 작가, 김보성 교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정한 에이조 모니터 중
컬러엣지 모니터 시리즈는 최고의 전문가 수준에
맞는 최고의 모니터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인정을 받은 에이조 모니터를
사용하실 시간입니다.



ColorEdge CS2731



QHD 27" (2560 x 1440)
16-bit LUT | EIZO 특허 DUE
USB Type-C | Adobe RGB 99%
ColorNavigator S/W

EVENT 사은품 증정!



SALE 1,870,000원



ColorChecker

Passport Photo DUO

- 1개의 제품으로 사진+영상 촬영 모두 사용 가능
- 사진촬영, 영상촬영을 위한 휴대가 간편한 여권 사이즈 컬러 타겟
- 포토 클래식 / 비디오 클래식 / 인핸스먼트 화이트 밸런스 / 그레이 밸런스 타겟



SALE 198,000원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71길 60-6 (세곡동)

TEL.02-713-5340 FAX.02-715-5340 www.eizo.co.kr * 전화 문의 바랍니다.

 WANDRD



WANDER MORE
WORRY
LESS

더욱 새로워진 WANDRD와 함께
어디서든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photo & culture
SAEKIP&C
Since 1977

대한민국 사진·영상장비 대표기업

본사_서울시 중구 수표로 22-12 세기빌딩 T.02.3668-3114(대) | F.02.742-3387
브랜드샵_T.02.3668-3109,3181 | F.02.2279-0887 광고·홍보_T.02.3668-3167



www.saeki.co.kr

포토키오스크

모두한컷

졸업앨범 전용



이동 편의성이 좋은 키오스크
 분리 조립이 쉽고 가벼워
 승용차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졸업앨범 컨셉촬영

졸업앨범에 셀프촬영 인생사진으로
 컨셉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 수익창출

학교 · 기업행사, 돌잔치, 예식장 등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파란소프트"를 검색 후 채널추가 > 채팅하기



파란소프트



가격 및 구입 문의

051-624-5075

E-mail. paransoft@naver.com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중고 사진기구 전문 판매 및 교환 전문 알뜰매장

“안 쓰는 사진기자재 무조건 삽니다”



- ① 대형카메라 및 필름카메라 매입
- ② 디지털 카메라, 렌즈 매입 및 보상판매
- ③ 고장 또는 성능이 떨어져 사진이 잘 안나오는 스트로보(외제, 국산)를 교환 및 수리 (무료출장 A/S 회원에 준함)
- ④ 각종 스탠드 수리 및 교환
- ⑤ 각종 배경 및 소품 파격적 가격
- ⑥ 예식장홀 스트로보 설치공사 및 수리
- ⑦ 스튜디오 매매
- ⑧ 스튜디오 기사 취업 알선

서울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현대프레미엄 B101호

02-3675-6698 FAX 02-745-0094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www.gana2000.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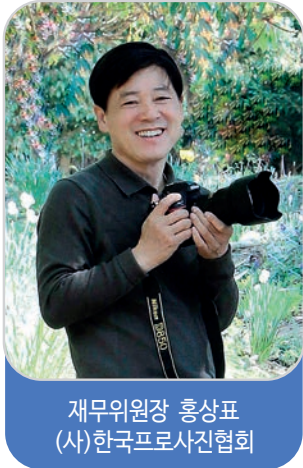
RiME LITE®



(주)현대포토닉스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123길 15 (침산동)
고객상담센터 : Tel : 053-359-1445~8 Fax : 053-359-0333
대표이사 : 황운호 www.rimelite.com



한국프로사진협회 70주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70년의 발자취 100년을 향한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한해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의 한 해도 저물어가며, 협회는 70주년
의 의미 깊은 해를 마감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간의 열정과 참여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프로사진업계는 디지털에서 AI로 그 어느 분야 보다도 빠른 변화로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빠른 변화속에는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창작 윤리 문제와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을 우리협회 주도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법적 지원
체계 강화로 거듭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세대 간 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진 작가와 베테랑 작가 간 협업 기회를 멘토링 시스템 도입으로 세대 통합
프로젝트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경쟁력과 정보화 강화를 위해서 우리 회원들께서는 더더욱 노력을 기울여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70년 역사의 무게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진의 본질을 지키며,

서로의 작품이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의 카메라에 희망과 창의성이 가득 담기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12 ²⁰²⁵ VOL. 575

발행인 겸 편집인

발행인 전병재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창간일 1977년 9월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TEL (02)4545-600(대)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_kppa1955 / PW_1234

기획위원장 나영균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이해승 주재기자, 변준섭 사무처장
인쇄 천상영(W 기획)
온라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 사진 촬영 : 베이비스타 이만식 >

< 제목 : 처음의 얼굴 >

< 작가노트 >

- 유치원 졸업사진으로 남겨진 이 한 컷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가장 순수하고
조용한 시작을 담은 초상이다.

8 www.kppa.co.kr

PRO portrait



KPPA's 협회소식

'2025 제4차 이사회의 회의록'

제4차 이사회가 지난 12월 10일 사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총회 준비와 정관변경(안) 등이
논의됐다.

10

권두언

- 7 한국프로사진협회 70주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총무위원장 홍상표

KPPA's 협회소식

- 10 2025 제4차 이사회의 회의록
12 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위원회, 정관변경 위해 법제 검토회의 개최
14 캐논안산 공장 전 직원 대상 사원증 사진 촬영 진행

CONTENTS

월간 Pro Portrai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간 Pro Portrait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협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5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실무자 정책간담회
- 16 중기중앙회, 「202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Kppa's EDU

- 18 사진규격 안내
- 21 신분증명사진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안



Kppa's NEWS

- 26 캐논코리아, 하반기 전략 신제품
- 29 인천지회 - 소방기술 경연대회
- 30 경남지회 - 2025년 하반기 운영위원회 성료
- 32 울산지회 - 제7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원전
- 34 전남지회 - 세계 유일 자연 장관, 영암호 가창오리 군무의 계절
- 36 나도사진작가전
- 40 현장탐방 - 스포트라이트 사진관
- 43 서현호의 카메라 아카이브



- 58 Kppa's 발전기금

2025년도 제4차 이사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 2025년 12월 10일(수) 13:00

5. 회의내용

2. 장 소 : 사진회관

가. 정대홍 총무이사는 총원 36명 중 18명 참석, 위임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병재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 선언함.

3. 참 석

- 회장단) 전병재, 이만식, 정태영, 서호경
- 이 사) 정대홍, 나영균, 홍상표, 박수열, 임병학, 이해승, 남유행, 김인형, 이대원, 이한우, 이영익, 이성열, 신병호, 박수만

나. 전차 회의록 승인과 유인물로 대체한 업무보고에 이어 의장이 안건을 상정해 다음과 같이 의결함.

4. 배 석

- 감 사 : 장광동, 이동기
- 지회장 : 심선오(전남), 박재영(부산), 이정주(경기), 김경식(강원), 이승주(충남)

의안 채택

- 제1호 의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변경(안)의 건
- 제3호 의안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건



▲ 사회보는 정대홍 총무이사



▲ 전병재 회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 홍상표 재무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박수열 법제위원장이 정관변경(안)을 발표하고 있다.

의안심의

○ 제1호 의안

1. 의결 주문 : 한국프로사진협회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논의하다.

2. 제안설명 : 나영균 기획위원장 / 홍상표 재무위원장

3. 의결내용

▷ 예산안 수입 항목 중 특별회계전입금 금액을 수정·보완하여 가결하다.

○ 제2호 의안

1. 의결 주문 : 정관변경(안)의 건

2. 제안설명 : 박수열 법제위원장

3. 의결내용 [별첨]

▷ 정관 제4조 9호, 제14조 1항, 제23조 2항, 제26조 12항 변경 및 신설(안)을 가결하다.

○ 제3호 의안

1. 의결 주문 :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논의하다.

2. 제안설명 : 정대홍 총무위원장

3. 의결내용

▷ 2026년 1월 29일(목)로 잠정 정하고, 장소는 집행부에 위임하다.



▲ 이사회 모습

[별첨] 정관변경(안)

현 행	변경 또는 신설(안)	개정사유
<p>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p>1. 사진문화정책에 관한 건의 및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p> <p>2. 사진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진작품 발표, 전시회, 촬영회 및 연구회</p> <p>3. 사진 전문 교육기관 설치, 사진강좌의 개설 및 기능검정 실시</p> <p>4. 사진에 관한 외국문헌의 조사연구, 사진사 연구소의 설치·운영 및 사진문화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p> <p>5. 사진관련 도서 출판 및 회보발행</p> <p>6. 회원과 사업소 심사 및 모범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p> <p>7. 사진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획</p> <p>8. 사진문화상 제정·시행</p> <p>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p>1. 사진문화정책에 관한 건의 및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p> <p>2. 사진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진작품 발표, 전시회, 촬영회 및 연구회</p> <p>3. 사진 전문 교육기관 설치, 사진강좌의 개설 및 기능검정 실시</p> <p>4. 사진에 관한 외국문헌의 조사연구, 사진사 연구소의 설치·운영 및 사진문화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p> <p>5. 사진관련 도서 출판 및 회보발행</p> <p>6. 회원과 사업소 심사 및 모범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p> <p>7. 사진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획</p> <p>8. 사진문화상 제정·시행</p> <p>9. <u>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익사업</u></p>	<p>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수익사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의견</p>
<p>제14조(임원의 임기)</p> <p>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4조(임원의 임기)</p> <p>① <u>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u></p>	
<p>제23조(의사록)</p> <p>② 의사록은 참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사무처에 영구보존해야 한다.</p>	<p>제23조(의사록)</p> <p>② <u>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참석 이사 전원의 서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비효율성</p>
<p>제26조(부의사항)</p>	<p>제26조(부의사항)</p> <p>⑫ <u>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이하 연번 수정</p>

협회소식 2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위원회, 정관 변경 위해 법제 검토회의 개최

- 임원 변경·수익사업 조항의사록 정비안 집중 논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박수열)는 11월 20일 사진회관에서 정관 변경을 위한 법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4차 이사회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수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협회의 방향성과 운영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다지기 위해 정관과 각종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논의가 협회의 투명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주요 안건 토의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자료에 첨부된 핵심 안건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됐다.

1. 임원 임기 변경(안) 검토

임기 2년이 너무 짧아 임원들이 장기적인 비전과 책임 경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기를 4년으로 변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 수익사업 관련 내용 정비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3. 의사록 서명 날인 수정

이사 수가 많아 참석 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지명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또한 제5장 이사회 의사록 내용이 부재하는 관계로 제26조 부의사항 “12항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수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갑수 위원, 김선석 위원, 변봉훈 위원, 변준섭 사무처장이 참석해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캐논안산공장 전 직원 대상 사원증 사진 촬영 진행

- 전병재 회장, 지난 8월 약속 이행... 협회 전문성과 사회적 협력 강화 -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는 11월 27일, 캐논안산 공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사진 촬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은 지난 8월 협회 세미나 준비 기간, 전병재 회장이 캐논 본사를 방문해 “전 직원 사원증 사진을 협회에서 책임지고 촬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협회는 전문 촬영 인력을 구성해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현장 촬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촬영에는 협회 이해승 복지정책위원장이 현장을 총괄했으며, 홍춘석 주재기자, 오익제 위원, 임원범 위원이 함께 동행해 촬영 운영 및 사진 품질 관리에 기여했다.

협회는 이번 협업을 통해 사진 전문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재 회장은 “협회가 가진 전문 역량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캐논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사진 촬영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본사 촬영 역시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최상의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협회소식. 4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실무자 정책간담회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법 제정 및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연합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업종별 회원사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현안 발굴 ▲제도 개선 요구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프로사진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정태민 부회장은 사진 산업·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미비와 신분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발표했다.

첫째, 사진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문화예술·체육 대부분의 분야에는 고유의 진흥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진 분야만은 여전히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백은 사진 산업과 예술의 체계적 발전을 막고 있으며, 창의적 인재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교육 기반 확충 등 중요한 과제들이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진진흥법의 제정은 사진 산업·예술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 지원과 산업 육성, 교육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제도 도입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기본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제도가 없어, 오래된 사진으로 인해 본인 확인 오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9년 플라스틱 재질 도입 이후 25년이 지나며 기재 정보가 흐릿해지거나 위·변조 위험이 증가한 점도 큰 문제입니다.

여권과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도 국제 기준에 맞춘 10년 이내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1999년 이후 발급자부터 순차적으로 갱신한다면 신원 정보의 최신화를 이루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현장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태민 부회장은 “사진 산업은 문화와 산업의 접점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며 “사진진흥법 제정과 신분증 제도 개선이 더 안전한 사회와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202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참석해 단체장들과 교류시간 가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13(목)~14(금)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씨마크호텔에서 「202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회장), 중소기업단체장 등 전국 각지에서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1박 2일간 진행된 일정 동안 정책 설명, 산업

별 현안 공유,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첫날 진행된 정책성과 보고에서는 올해 중소기업계가 추진한 정책 주요 과제, 현장 애로 해결 사례, 협동조합 중심의 산업 활성화 노력 등이 발표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력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통상 리스크, 제조 기반의 지속적 약화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3대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AI 주권 확보가 주요과제로 떠오른 만큼 AI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소비트렌트분석센터 서유현 박사의 특강도 진행되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지금도 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고 대내외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AI 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 확대에 협동조합이 앞장설 수 있도록 리더십과 지혜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번 「202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에는 한국프로 사진협회 전병재 회장도 참석해 각 단체장들과 환담을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전 회장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여러 협동조합·단체의 리더들을 직접 만나 사진산업계의 현안과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 회장은 행사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흐름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한 자리에서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AI 시대를 맞아 모든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사진산업 역시 기술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그는 “오늘처럼 다양한 산업의 지도자들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한국프로 사진협회 역시 문화예술과 기술을 잇는 가교로서 협동조합 및 여러 중소기업 단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



▲ 단체장들과 기념촬영

사진규격 안내

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 10. 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인 그대로 나타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발급이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만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코, 이마 등이 크게 보이고 귀가 잘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사진 편집 기능(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사이인 사진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안경 및 반사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사진 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올바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여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링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아님
- 캐치라이트(반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가림



-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머리 길이 및 얼굴 크기 왜곡
- 조명이 지나치게 밝음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지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쇄된 선명함(해상도 3000P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 천체적으로 조명이 균일하지 않음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미소 포함), 미소(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썹을 올리거나 눈썹을 누르거나)는 허용하지 않음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는 언더컷,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 무표정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지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머리를 앞으로 숙임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항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헤드폰은 착용 불가함



- 머리카락이 정수리를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얼굴이 옆으로 기울어짐



- 이어폰 착용
- 조명이 밝아 빛 반사가 심함
- 안경테가 눈과 겹침



- 스카프가 얼굴윤곽을 가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및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칼라-사울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 캐치라이트(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가림
- 지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안경 및 반사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아래로 향함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용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 사물이 노출됨
- 배경에 음영이 있음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배경방향이 정면이 아님



-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 입을 벌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 눈을 감음
- 혀를 내림
- 어깨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 국제면허증 사진규격

- 3.5cm X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근거함



얼굴 비율 · 사진 품질

- 머리 길이가 정수리(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
- 화상자료 입력 용도로 적합한 사진



훼손 사진



저해상도(저품질) 사진



압인 등이 찍힌 사진

배경 · 조명

- 무배경, 적절한 조명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른 안됩니다.



배경



조명 과다



조명 부족



그림자(또는 얼굴 음영)

장신구 · 보정

- 액세서리 착용으로 인한 과도한 얼굴 가림이 없어야 합니다.
- 인위적으로 합성된 사진 불가



색안경(또는 모자) 착용



보정 과다



AI 프로필 사진

얼굴 방향 · 표정

- 정면 구도, 정면 응시, 무왜곡
- 표정은 무표정을 유지해야 하며 치아가 보이면 안됩니다.



측면 사진



치아가 보이는 사진



얼굴 방향 및 어깨선



확대 비율

온라인 신청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 파일
- 가로 350, 세로 450 픽셀
- 위 표준규격을 준수할 것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잘못된 비율



인화 사진 재촬영



여권 등 타 신분증 스캔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사진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 이미지(보정된 사진), 복사 사진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 불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얼굴비율 및 사진 품질

-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흑백 사진



왜소 사진



확대 비율

배경 및 조명

-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 (열은 단일색 배경 가능)
-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조명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안됩니다.



배경



조명 과다



조명 부족

안경 및 액세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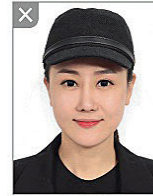
- 색안경을 쓰거나(시각장애인 제외)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됩니다.



지나친 얼굴 가림



선글라스



모자 착용

얼굴 방향 및 어깨선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 측면포즈 사진은 불가합니다.



얼굴 기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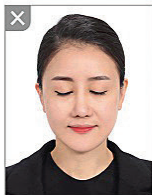
얼굴 측면 응시



측면 포즈

표정 및 눈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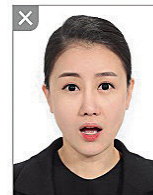
-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어야 합니다.
- 눈은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합니다.



눈 감음



눈동자 측면 응시



입 벌림

신분증명사진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안

-캐나다독일 사례와 한국의 방향성-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

1. 왜 지금 '증명사진 제도'인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에 들어가는 작은 증명사진은 행정 절차 전체의 신뢰를 떠받치는 첫 단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증명사진은 아직도 “규격만 맞으면 되는 사진”, “아무 데서나 대충 찍어도 되는 사진”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셀카와 자동 부스, 과도한 보정 앱이 일상화되면서, “이 사진이 정말 본인을 정확히 반영하는가?”, “언제, 어디서, 누가 찍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이미지 위·변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지금, 증명사진 제도를 단순한 규격 문제가 아닌 ‘신원 인증 인프라’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진단한 뒤, 한국형 신분 증명사진 제도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캐나다 비자·여권용 증명사진 실명제 제도 논의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제안을 함께 담았습니다.

2. 해외 주요국 신분증명사진 제도의 특징

2-1. 캐나다 - 사진 실명제와 보증인 제도가 만드는 신뢰

캐나다의 여권·비자용 사진에 대해 매우 체계적인 실명·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반드시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촬영 스튜디오의 이름과 주소, 사진작가의 이름, 사진이 찍힌 일자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진작가는 스탬프를 찍거나 정보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라벨부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진이 ‘언제, 누구에 의해 촬영되었는지’를 사진 자체에 각인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실명·보증 체계는 ① 최근 촬영된 본인 사진임을 입증하고, ② 위·변조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사진관·사진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③ 행정기관이 사진의 진정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2. 독일 - 정부인증 스튜디오와 디지털 전송 체계

독일은 최근 여권·신분증 사진에 대해 ‘디지털 전용(e-passbild)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passbild)용 사진은 정부가 인증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디지털 사진만을 접수하며, 사진은 고보안 전송 방식으로 관공서에 직접 전송됩니다. 종이 사진만 제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진의 촬영·전송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인증받은 스튜디오만이 공식 채널에 참여하도록 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진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독일은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종이 사진” 대신 “인증 스튜디오 → 보안 전송 → 행정기관”이라는 폐쇄적이고 신뢰도 높은 사진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특징과 한계

우리나라 역시 여권·비자·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에 대해 세부적인 사진 규격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사진의 경우 35×45m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응시, 연한 배경, 색상·명암·콘트라스트 기준 등 비교적 세밀한 기술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1) 실명·책임 체계 부재

사진 뒷면이나 파일 메타데이터에 사진관 이름·촬영 일자·등록번호 등을 표기하도록 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사진”도 규격만 맞으면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2) 촬영 과정에 대한 관리 부재

자동부스, 모바일 셀카, 과도한 피부 보정·눈 확대 등 필터 앱을 통한 사진 제출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걸러내는 안전장치는 제한적입니다. 일부 기관은 ‘과도한 보정·합성 사진 금지’를 안내하지만, 강제력이나 사후 책임 추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3) 디지털 신원체계와의 연계 미흡

전자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신분증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사진 파일의 EXIF·촬영정보를 행정시스템과 연동하는 표준은 미비합니다. 사진관·사진사에 대한 등록·인증 체계 역시 신분증명사진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의 현행 제도는 ‘사진 한 장의 규격과 모양’은 비교적 잘 규정되어 있지만, 그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 책임 주체, 디지털 환경에서의 진위 검증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4. 비교를 통해 본 제도적 시사점

해외 사례와 우리 현실을 비교하면 다음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첫째, 실명성(Real-name) - 캐나다처럼 사진을 만든 주체(사진관·사진사)를 사진과 법적으로 결합시키면, 위·변조 억제와 사후 책임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디지털 보안(Digital integrity) - 독일처럼 정부 인증 스튜디오와 보안 전송 체계를 갖추면, 종이 사진 위주의 허술한 제출 과정을 디지털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신분증명사진 제도 선진화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한국 현실에 맞게 통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한국형 신분증명사진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안

제안 1. 공공 제출 증명사진 ‘실명·촬영일 표기 의무제’ 도입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증명사진에 대해, 다음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촬영 사진관이름과 사진제작자성명
- 사진관 사업자등록번호
- 촬영일자(인쇄일이 아닌 실제 촬영일)

표기 방식은 자필 서명, 등록 스탬프, QR/바코드, 워터마크·마이크로텍스트 등 여러 방식 중에서 제도 설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연구용역 필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기관은 사진 뒷면 또는 여백의 정보를 통해 “언제·어디서·누가 찍은 사진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해당 사진관과의 소통 및 책임 규명이 쉬워집니다.

제안 2. ‘정부인증 증명사진 스튜디오’ 제도 신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신분증명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제작하는 사진관을 ‘정부인증 증명사진 스튜디오’로 지정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인증 요건으로는 규격·조명·표정 등 각종 신분증 사진 기준을 충족시키는 촬영 역량, 개인정보보호·촬영 데이터 관리 체계, 딥페이크·과도한 보정 등 위·변조 방지 교육 이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촬영 파일을 표준화된 포맷으로 저장하고, 공공 포털 또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에 직접 전송하며, 필요 출력물에는 실명·촬영일을 QR코드 등으로 병기합

니다.

국민은 가까운 인증 사진관을 찾아 사진을 찍고, 행정기관은 “인증 스튜디오 출처의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품질과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진관 산업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안 3. 디지털 메타데이터·신원체계와의 연계

실물 사진의 뒷면 표기와 함께, 디지털 파일 차원의 ‘보이지 않는 서명’도 중요합니다. 사진 파일(EXIF)에 촬영장비·위치·촬영시간·사진관 ID 등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입력하고, 행정시스템이 이를 자동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보편화되면, 이 메타데이터는 사진 위·변조 여부를 자동 탐지하고, 동일인의 다중 신청을 방지하며, 사진 갱신 주기(예: 10년, 5년)를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안 4. 품질관리 · 교육 ·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좋은 신분증명사진’에 대한 업계 공감대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 신분증명사진 촬영 · 보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인증 스튜디오 및 일반 사진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 ·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며, 사진관이 스스로 촬영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자가점검 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예쁘게 나오는 사진”을 넘어 “신원 확인을 위한 정확하고도 품위 있는 사진”에 대한 기준을 업계와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 5. 법 · 제도 정비 - ‘사진제작정보 표시 의무’의 명문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법률 · 시행령 차원의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사진진흥법과 함께 주민등록법, 여권법, 도로교통법 등 개별법의 시행규칙에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증명사진에는 촬영한 사진관 또는 사진제작자의 성명, 촬영일자, 사진관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식별 가능하게

표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반영한다면, 신분증명사진 제도의 법적 위상과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맺으며 - 신분증명사진, 국민 신뢰를 세우는 첫 단추

신분증명사진은 단순한 ‘작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국민의 얼굴, 행정의 신뢰, 디지털 사회의 안전을 동시에 담고 있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캐나다의 실명제, 독일의 디지털 인증 스튜디오처럼, 우리 역시 제도를 통해 사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전문 사진관의 역할과 가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와 전국 사진인들이 이러한 논의를 선도해 나간다면, 증명사진을 둘러싼 제도 개선은 단지 규격 정비를 넘어, 국민 신뢰를 세우는 공익적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안이 그 논의를 시작하는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캐논코리아, 하반기 전략 신제품

‘EOS C50’과 ‘EOS R6 Mark III’ 공개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대표이사 박정우, kr.canon)가 하반기 전략 신제품 EOS C50과 EOS R6 Mark III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27일(목)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병림 캐논코리아 마케팅 부문장이 캐논코리아의 창립 40주년에 대한 성과와 브랜드 철학, 향후 비전을 공유했으며, 황종환 캐논코리아 마케팅 매니저가 신제품 EOS C50 및 EOS R6 Mark III의 주요 특징점을 소개했다.

정병림 캐논코리아 마케팅 부문장은 “캐논코리아는 22년 연속 국내 및 전 세계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 1위를 유지하면서 올 상반기에도 렌즈교환식 카메라 및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수성하며 업계의 리더로서 고객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새롭게 출시한 두 제품은 품질과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린 명확한 증거”라고 소개했다.

캐논코리아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제품 EOS C50과 EOS R6 Mark III를 정식으로 선보였다. 콤팩트한 설계

에 시네마급 영상 품질을 구현한 EOS C50과 사진과 영상을 모두 아우르는 EOS R6 Mark III는 캐논의 독보적인 광학 기술력이 집약됐으며, 급변하는 영상 콘텐츠 시장의 흐름에 대한 캐논코리아의 ‘영상 집중 전략’의 결과물이다.

■ 시네마 EOS의 새 역사를 쓰는 가장 작고 강력한 7K 풀프레임 카메라, EOS C50

‘EOS C50’은 전문가급 품질과 유연성을 갖춘 시네마 EOS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 전문가를 지향하는 영상 크리에이터부터 전문 프로덕션 종사자까지 폭넓은 사용자 층을 위한 콤팩트 시네마 카메라다. 신규 7K 풀프레임



▲ 콤팩트 시네마카메라 ‘EOS C50’

CMOS 센서와 DIGIC DV 7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7K 60P의 고화질 RAW 영상을 외부 저장 매체 연결 없이 카메라 내부에 직접 기록할 수 있으며, 4K 120P, 2K 180P의 하이 프레임 레이트(HFR) 촬영도 지원한다.

EOS C50은 3:2 풀프레임 센서 전체를 활용한 '오픈 게이트(Open Gate)' 촬영을 지원해 후반 작업에서 수평·수직 영상 편집의 자유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듀얼 베이스 ISO를 지원해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으며, 캐논 로그 2 (Canon Log 2)와 캐논 로그 3 (Canon Log 3)도 지원한다. EOS C50에 적용된 전자식 손떨림 보정(IS) 기능은 IS 미지원 렌즈나 아나모픽 렌즈 장착 시에도 안정적인 영상 촬영을 지원하며, IS를 지원하는 RF 렌즈와 결합 시 통합 제어로 더 안정적인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EOS C50은 약 670g의 무게와 경량화 설계를 통해 시네마 EOS 시스템 역사상 가장 작고 가벼운 디자인을 실현했다. 굴곡이 적은 평평한 직선형 디자인과 풍부한 액세서리 홀을 갖춰 별도의 케이스 없이도 수평 및 수직 모든 방향에서 마이크, 짐벌 등 액세서리를 손쉽게 장착해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카메라 본체 외에도 기본 제공되는 핸들 유닛에 REC 버튼 및 줌 레버를 배치해 핸드헬드 촬영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고, 회전형 LCD 화면을 통해 어느 각도에서든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후면 조작부에는 14개의 커스텀 버튼을 배치해 약 100가지의 단축 기

능을 설정할 수 있다.

EOS C50은 RF 마운트를 포함해 전용 마운트 어댑터를 통해 EF 마운트와 PL 시네마 마운트 렌즈를 조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적에 맞춰 단초점, 줌, 시네마, VR 렌즈는 물론, 특수 아나모픽 렌즈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USB-C 기반 고화질 라이브 송출, IP 스트리밍, Frame.io 연동 클라우드 전송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으로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지원한다.

■ 올라운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6 Mark III

‘EOS R6 Mark III’는 EOS R6의 세 번째 모델로 전작 대비 고화소 센서를 탑재해 고화질을 실현했으며, 최대 연속 촬영 매수와 AF, 영상 촬영 성능을 대폭 강화한 하이브리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다. 약 3,250만 화소의 풀프레임 CMOS 센서는 세밀한 디테일을 표현하며, 기계식 셔터 기준 초당 최대 약 12매, 전자식 셔터 기준 초당 최대 약 40매의 고속 연사 촬영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다. 셔터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순간을 기록하는 사전 연속 촬영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EOS R6 Mark III에는 딥러닝 기반으로 한층 진보한 듀얼 픽셀 CMOS AF II를 채용해 자동차, 사람, 동물(개·고양



▲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EOS R6 Mark III'

이·새·말), 탈 것(비행기·열차) 등 다양한 피사체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EOS R5 Mark II에도 적용된 등록 인물 우선 기능을 지원해 최대 100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여러 인물이 있는 장면에서도 원하는 대상을 정확히 검출한다.

사진뿐만 아니라 뛰어난 영상 촬영 성능도 돋보인다. 최대 7K 60P의 고화질 RAW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4K 60P 영상 촬영 시 오버샘플링을 통해 고해상도 영상을 실현했다. 4K 120P 및 2K 180P 하이 프레임 레이트(HFR) 촬영도 지원해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감각적인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EOS R시스템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7K 오픈게이트를 지원해 넓은 화각으로 최고 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편집 시 가로, 세로 등 원하는 비율로 손쉽게 크롭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EOS R6 Mark III부터 기존의 '픽처 스타일'에 14가지 '컬러 필터'와 전문 영상용 설정을 직접 구성하

는 '커스텀 픽처 모드'가 새롭게 탑재돼 일관된 색감과 톤을 간편하게 연출할 수 있다. 캐논 로그 2 (Canon Log 2)를 추가해 다양한 환경에서 관용도를 더욱 높였고, 룩 파일(Look File)과 LUT 제공으로 복잡한 색보정 없이도 시네마틱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EOS C50은 11월 27일(목)부터 구매 가능하다. 오는 12월 10일(수) 정식 출시를 앞둔 EOS R6 Mark III의 가격은 ▲바디 349만 9,000원 ▲EOS R6 Mark III 24-105 USM KIT 482만 8,000원 ▲EOS R6 Mark III 24-105 STM 394만 9,000원이다. 신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캐논코리아 공식 홈페이지(kr.can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OS C50

제품 사이즈	약 142 x 88 x 95mm
무게	약 670g
센서 엔진 시스템	35mm 풀프레임 CMOS 센서
유효 화소 수	약 3,240만 화소
감도	사진 100-64000 영상 160-25600 *2가지의 Base ISO 지원
드라이브	초당 약 40매(전자식 셔터)
영상 촬영 해상도	3:2 오픈게이트 지원, 7K (6960x3672) 60P RAW

EOS R6 Mark III

무게	약 699g (배터리/메모리카드 포함 시)
센서 엔진 시스템	35mm 풀프레임 CMOS 센서
유효 화소 수	약 3,250만 화소
상용감도	사진 100-64000 / 영상 160-25600
방진방적	지원
드라이브	초당 약 40매(전자식 셔터) + 사전 연속 촬영
AF	Dual Pixel CMOS AF II
IS	중심부 8.5스톱, 주변부 7.5스톱
영상 촬영 해상도	3:2 오픈게이트 지원, 7K (6960x3672) 60P RAW *Custom Picture (Canon Log2/3 등), Picture Style 지원

인천지회뉴스

소방기술 경연대회

사진·글: 인천지회 주재기자 홍춘석



2025년 10월30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025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에 3,867개대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94,257명의 대원들이 실제 화재발생시 필요한 경계.진압.구조.구급.대피.구호.화재예방 업무를 보조 한다고 합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화재진압 : 산불 및 주택 화재 시에 출동하여 진화를 돕습니다.

(의용소방대 별로 산불진화차 제공되어 산불 진화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여 진화에 앞장섭니다.)

▲행사지원 : 해당 마을의 축제나 행사에 동원되어 교통, 안전, 질서 유지 등의 업무에 동원됩니다.

▲순찰 및 경계 근무 : 마을 치안 순찰이나 산불 감시 경계 근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마을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읍,면,동 단위로 조직되어 화재,산불진화, 행사 지원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봉사 단체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날 개최한 인천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신속한 업무를 위해 소방기술경연 3종목과-4인조법(4명),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심폐소생술 화합분야 5개종목-400M 계주,족구,소방볼링,구명환 구조,파이어볼 등 총 8개 종목으로 경연을 하였습니다.

전국에 의용소방대가 이처럼 활동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을 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소방대와 의용소방대 파이팅~



내실 다지며 미래를 그린다: 2025년 하반기 운영위원회 성료



▲ 특강전 운영위원회 소개

서론 : 사진 문화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화합의 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남지회(이하 경남지회)가 지난 2025년 11월 19일, 진주 흥스튜디오에서 '2025년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는 천우철 경남지회장을 필두로 허재준 수석 부지회장, 이동기 사무국장 등 집행부가 참석해 회의를 이끌었으며, 김찬홍 앨범조합이사장과 홍상표 재무위원장 이 자리를 함께해 협회 차원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홍진 마산지부장과 문병두 마산지부총무가 참석해 지부 간의 결속을 다졌고, 관련 업계의 안태호 커맨더웍스 대표, 유경인 원배경 대표가 함께하며 산학 협력과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본 기사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2025년의 주요 활동 내역과 협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1. 2025년 활동 결산 : 활발한 교류와 내실 강화의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경남지회는 협회 내외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조직적 신뢰와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분석된다.

경남지회의 2025년은 새로운 리더십 구축으로 시작됐다. 연초 개최된 제63차 정기총회 및 제26대-27대 이·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지회는 대내외 교류를 통해 활동 반경을 넓혔다.

- 전국 단위 네트워크 강화: 전남, 울산, 부산지회 등 형제 지회의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며 유대를 공고히 했다.
- 회원 단합 및 역량 강화: 신년하례회를 시작으로, 제45회 연수대회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66회 국제프로 사진세미나 등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 산하 조직 활성화 지원: 마산지부의 월례회의 등을 적극 지원하며 지회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했다.

2. 미래를 향한 핵심 의제 : 장학 제도 혁신과 정부 사업 참여 확대

이번 운영위원회는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협회의 미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의제에 집중했다.

2.1. 장학금 제도의 혁신 : 안정성과 현실성을 향한 변화



▲ 특강 모습

경남지회는 미래 사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해 온 장학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은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혜택의 '현실화'다. 기존의 단기(1년 만기) 운용 방식을 장기(2년 만기) 운용으로 변경하여 자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춰 장학금 사용처를 재검토함으로써 회원 및 가족들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2.2.회원 지원 강화: "정부 지원 사업,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

이번 회의의 백미는 회원들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골목사진관 한장훈 소장의 정부 지원 사업 실무 특강이었다. 한 소장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수령이 아닌, 스튜디오의 자생력을 키우는 필수 생존 전략임을 강력히 역설했다.

한 소장은 "많은 회원이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지만, 핵심은 '증빙'에 있다"라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 시각적 자료의 힘: 사업장 전경, 보유 장비 사진 등 사업 실체를 증명하는 자료 준비의 중요성 강조.
- 증빙의 시각지대 해소: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직접 배달' 등의 상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적 대안 제시.
- 중복 수혜 노하우: 여러 기관의 지원 사업을 전략적으로 교차 신청하여 수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팁 공유.

경남지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협회의 가이드를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서

회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경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지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결론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가 단체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남지회의 2025년 하반기 운영 위원회는 지난 활동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천우철 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내빈, 그리고 협력 업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이번 결과물은 경남지회가 ****회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전문가 단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장학금 제도의 내실화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독려라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경남지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진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



▲ 천우철 경남지회장

제7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원전

「가족사랑을 닮다」사진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광역시지회(회장 안성현)는 지난 11월 3일(월)부터 11월 4일(화)까지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 별빛마루에서 「제7회 회원전 - 가족·사랑을 닮다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울산광역시 후원으로 열렸으며, 총 21명의 작가가 참여해 54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시대에 다둥이가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가족애와 공동체 정신을 사진예술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 작가들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일상을 촬영하여 따뜻한 가족의 순간과 웃음을 기록하였으며, 작품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세대 간의 화합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되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다둥이가정의 행복’이었다. 저출산

특히 11월 3일 오후 5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작가와 시민





이 함께 어우러져 전시의 개막을 알렸으며, 전시장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가족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체"라며 "이번 전시가 다동이가정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가족문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막식에 참석한 우리협회 전병재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전은 단순한 작품 전시가 아니라, 사진예술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다동이가정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협회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안성현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진은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가장 따뜻하게 기록하는 매

이번 제7회 회원전은 단순한 사진 전시가 아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행사로 평가되었다. 사진 예술을 통해 다동이가정을 응원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전시였다. 앞으로도 울산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가족과 문화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지회뉴스

세계 유일 자연 장관, 영암호 가창오리 군무의 계절



사진: 서현호 초대작가
글: 기획위원장 나영균

- 2012 한국예총 사진인의상 수상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추천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 지도위원
- “인생은 자유다” 서현호사진전

겨울철 영암호가 특별한 자연의 향연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가창오리 무리가 영암호를 찾아 장관을 이루고 있다.



희귀 철새 가창오리, 영암호에 집결

가창오리는 몸길이 약 35~40cm, 무게 400~600g의 소형 오리로, 수명은 대략 7~8년이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가창오리 중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암호는 전라남도 영암군과 해남군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말이 되면 50만에서 60만 마리에 달하는 가창오리 무리가 이곳에 모여든다. 서산, 예산, 군산, 고창 등 서해안 일대와 함께 영암호는 가창오리의 대표적인 월동지로 손꼽힌다.



해질녘 펼쳐지는 자연의 교향곡

가창오리의 가장 큰 볼거리는 일몰 시간대에 펼쳐지는 군무다. 낮 동안 호수 한가운데서 휴식을 취하던 가창오리들은 해가 기울면서 먹이 활동을 위해 일제히 날아오른다. 수십만 마리가 동시에 비상하며 만들어내는 장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자연 현상이다.

이러한 장관을 보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사진작가와 탐조 애호가들이 영암을 찾고 있다.



봄까지 이어지는 월동 시즌

가창오리들은 시베리아의 혹한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하며, 영암호와 고창 동림저수지 등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이듬해 2~3월에는 북상을 준비하며 충남 예당호와 삼교호로 이동해 다시 큰 무리를 형성한다.

한때 개체 수 감소로 우려를 낳았던 가창오리는 2012년 환경부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해제되었으며, 현재는 개체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창오리 관찰은 해질 무렵인 오후 5시 이후가 가장 적합하며, 영암호 주변 관찰 포인트에서 이 장엄한 자연의 드라마를 만날 수 있다.

나도사진작가전

렌즈로 담아낸 존엄, 11년간 이어온 예술의 울림

제11회 나도사진작가전, 발달장애인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서다



오마이뉴스
신문 보도기사 큐알코드

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위원장 나영균
E-mail: siss4779@nate.com
Tel: 010-7477-3833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렌즈로 포착한 세상이 노원구청 전시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비영리단체 열린문화이음(대표 나영균)이 주관하는 '제11회 나도사진작가전'이 12월 14일 오후 2시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폐막식을 가졌다.



▲ 환영사를 하고 있는 열린문화이음 대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위원장 나영균

11년간 이어온 문화예술의 포용

이번 전시는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와 서울정민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은 작품들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노원구청 2층 로비에서 선보였다. 2015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당사

자들이 사진을 통해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작가로서의 자긍심을 키워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자립적 활동과 맞춤형 지원의 조화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는 올해 '서울의 물길을 렌즈 속으로'라는 주제로 자체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2월 활동 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숲, 청계천, 여의도 한강, 반포 한강공원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탐방하며 도시 속 물길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았다. 9월 품평회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하는 등 전문 작가와 다름없는 프로세스를 보여줬다.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 25년도 활동 스토리텔링

25.03.03 OT



25.04.05 서울숲과 한강



25.05.05 청계천



25.06.06 한강유람선



25.07.06 한강반포공원



25.08.14 발달장애인사진공모전



25.09.06 작가사진 품평회







서울정민학교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개인 초상사진은 열린문화이음 소속 전문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로 촬영됐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전문적으로 담아낸 이 작품들은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전시되며 큰 울림을 주었다.

서울정민학교 36명 프로필



지역사회가 함께한 감동의 현장



▲ 우원식 국회의원 축사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축사



▲ 오승록 노원구청장 축사



▲ 손영준 노원구의회위원장 축사

이번 전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노원을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안내서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 서준오 시의원, 오금란 시의원, 송재혁 시의원, 박이강·정시은 구의원이 폐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내서 축하말을 통해 "2015년부터 매해 완성도 높은 작품들로 노원구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사진에는 말과 글로 다하지 못하는 진심이 담긴다"며 "이웃들과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내서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정책,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 제11회 나도사진작가전 참석해 단체로 인사말을 전하는 우원식 의장, 지역특보 이경선, 오금란 시의원, 서준오 시의원, 박이강 구의원, 정시온 구의원



▲ 제11회 나도사진작가전 박진우 노원미술협회 회장, 나영균 열린문화이음 대표, 송재혁 시의원, 김재천 시인, 구자윤 노원예총회장

사회 변화의 주체로 나아가는 12회 준비

나영균 열린문화이음 대표는 "제11회 전시회를 통해 발달 장애인 사진 활동이 획일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자율성을,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포용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12회부터는 환경 캠페인과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하며, 발달장애인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뜻을 함께할 기관과 개인, 후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제11회 나도사진작가전 나영균 대표는 "제12회부터는 환경 캠페인과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동천하우스 원장은 "핸드폰으로 세상을 담은 소박한 모임이 11년의 시간 속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작품을 스스로 선정하며, 사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세상과 소통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삶의 언어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1회 나도사진작가전 개요]

- ▶ 행사명 : 제11회 나도사진작가전
- ▶ 기간 : 2025년 12월 10일(화) ~ 14일(토)
- ▶ 장소 : 노원구청 2층 로비 (전시), 6층 소강당 (폐막식)
- ▶ 참여기관 :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 서울정민학교
- ▶ 주제 : '서울의 물길을 렌즈 속으로' 외
- ▶ 주관 : 비영리단체 열린문화이음
- ▶ 후원 : 노원구청, 노원구의회, 영웅시대 서울동북부 병남 그레이회원, 인덕대(디지털산업디자인학과),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노원국악협회, 디온(THEON)네트웍스, 토브그룹(주), 파란소프트

현장탐방 | 스포트라이트사진관

“빛이 머무는 자리, 스포트라이트”

홈플러스 울산북구점에서 상안동으로... 전화위복의 확장이전기

문을 열자 선명한 노랑이 먼저 반긴다. 간판, 어닝, 창호의 톤이 환하게 연결되고, 내부로 들어서면 정돈된 동선과 조명 레일, 백그라운드 라인이 차분히 정리되어 있다. 스포트라이트사진관(대표 김하영)은 홈플러스 울산북구점에서 27~28년 가까이 지역의 ‘공적·사적 기록’을 담당해온 동네 대표 스튜디오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이사가 아닌, 홈플러스 폐점 통보라는 위기를 브랜드 재설계의 기회로 바꾼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였다.



▲ 노랑 파사드와 대형 원도로 리뉴얼한 스포트라이트사진관 외관

왜 이전했나: 갑작스러운 홈플러스 폐점, 그리고 결심

지난 2025년8월 중순경 홈플러스 울산북구점의 폐점 통보는 충격이었다. 김대표는 나름대로 홈플러스 사진관을 전국 마트 최고의 사진관으로 키우기 위해 사진인생 28년의 세월동안 열정을 바쳤으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오랜 동지가 타의에 의해 허물어졌다며 허탈해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고 다시 재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곧바로 고객 동선·주차·가시성·홈플러스 인접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이전장소 후보지를 추렸고, 결과는 울산 북구 상안동 357-21, 103호였다. 눈에 확 들어오는 전면의 넓은 파사드와 좋은 채광이 결정적이었다.

김대표는 이전 장소를 확정된 뒤 인테리어 방향에 집중해 시공사를 물색했고, 최종적으로 BOB디자인그룹을 선택해 수차례 디자인 미팅을 거쳐 약 두 달 동안 새 사진관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평 남짓한 제한된 면적이지만 증명사진 촬영 존과 가족사진 촬영 존을 분리해 동선을 나누고 공간 효율을 최대화했다고 덧붙였다. 왜 노랑인가: 브랜드 컬러의 선언

의·기쁨·영감·활력·생기를 상징한다. 김 대표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고객의 표정이 환해지길 바랐다. 여권·비자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촬영도 따뜻한 감정이 흐르면 더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말한다. 노랑은 ‘환영’을, 내부의 화이트톤은 공간을 넓고 밝게 만들어 주었다.

외관과 인테리어의 키 컬러는 노랑이다. 노랑은 행복·창



▲ 증명/프로필 존과 가족사진 존을 분리한 사진관 내부전경

인터뷰 | 김하영 스포트라이트사진관 대표

Q. 확장이전의 핵심 목표는?

전국 마트 사진관 가운데 늘 상위권 평가를 받으며 28년간 홈플러스 울산북구점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폐점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우리 고객이 잊지 않고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서비스’로 모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새 공간 인테리어에서 역점을 둔 내용은?

무엇보다 고객 동선과 안정적인 품질입니다. 문을 들어오면 상담 • 접수 → 파우더룸(헤어 • 메이크업 정돈) → 촬영실 → 리뷰 모니터 셀렉까지 흐름이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레이아웃을 세심하게 잡았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증명 • 여권 촬영 존과 가족사진 촬영 존을 분리했고, 가족사진 공간은 셀프 스튜디오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여권 • 비자 사진의 차별화 포인트는?

국가별 최신 규격과 반려 사례를 내부 DB로 관리합니다. 촬영 전엔 안경 • 헤어 • 귀 노출 • 액세서리 체크리스트로 변수를 줄이고, 후보정은 사실성 보정 원칙을 지켜 반려율을 낮춥니다. 예뻐보다 인식 정확도가 먼저라는 철칙을 지킵니다.

Q. 지역 스튜디오로서의 역할과 향후 계획은?

한 가족의 공적 • 사적 기록을 끊임 없이 이어주는 '동네의 공적 기록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 으로서 사진진흥법 제정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같은 제도 개선에도 계속 힘을 보탬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사진관 대표 김하영]

INFO

- 상 호 : 스포트라이트사진관 (SPOTLIGHT)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57-21, 103호
- 연락처 : 286-0288 / 카카오톡 채널 • 인스타 @spot_light
- 영 업 : 월 - 토 10:00 - 20:00 / 일 휴무
- 주요 서비스 : 여권 • 비자 • 증명, 프로필/입사, 가족사진촬영, 프린트/액자

CONLEY 4×5 대형필름카메라(미국, 1920년 전후)

카메라의 역사 보존과 사진 문화 계승의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글: 기획위원장 나영균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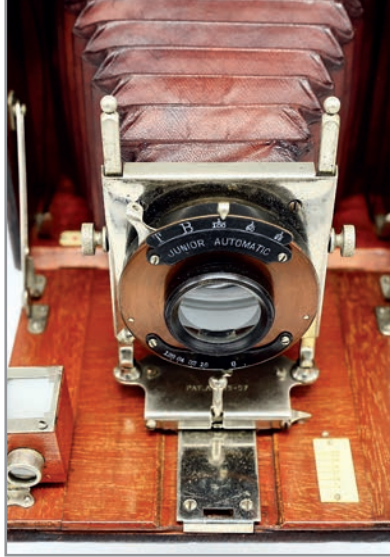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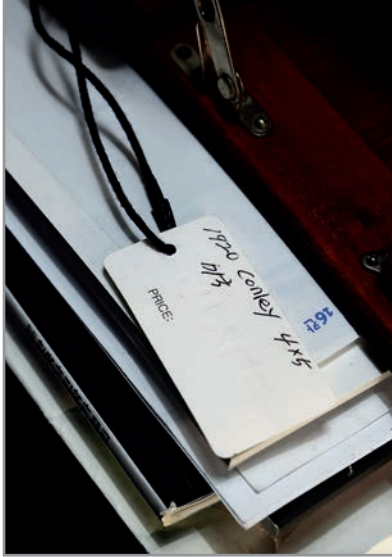
- Conley(콘리)는 미국(미네소타 로체스터) 기반 카메라 제조사로, 1900~1920년대에 대중형·실용형 카메라(폴딩/뷰 카메라 포함)를 다수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용 포맷 “4×5”는 대형(large format) 규격으로, 당시에는 유리건판 또는 시트필름(4×5)을 사용했습니다.
- 본 문서는 “한국 유입 가능 시기”, “국내 최초 사용(확인 가능한 사례) 여부”, “현재 가치(시세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 대한민국에는 언제 들어왔나?

- “Conley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정확히 언제(연·월) 들어왔다”를 브랜드명으로 확정해 주는 공개 1차 기록은 현재 기준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 다만 ‘유입 가능 시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유입 가능 시기(합리적 범위)]

- Conley의 주요 생산 시기: 대략 1899년경~1927년경 (자료별 표현 차이 가능)



- 한국에서 사진술 활용이 이미 시작된 시점: 1880년
무렵부터 본격화로 정리되는 자료가 있음

→ 따라서 Conley 4×5의 한국 유입 가능 범위는
“1899~1927년”이며,

특히 사진관·기관 촬영 수요가 늘어난 “1910~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니다.

[정확한 유입 시점 확인을 위한 실무 포인트]

- 카메라 실물에 남은 표기(명판/각인/모델번호/판매상
라벨)

- 렌즈·셔터 각인(제조사/모델/시리얼/특허표기 등)

- 소장 이력(어느 사진관에서 사용했는지, 언제 누구에게
서 구입했는지, 지역/인물 증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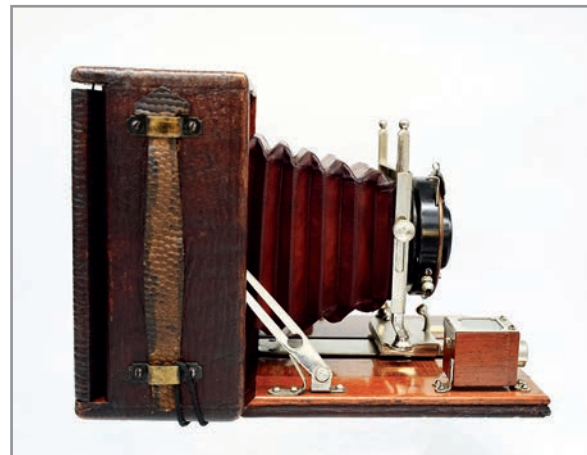


→ 위 3가지가 확보되면 “국내 유입·사용” 근거를 문서
화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3.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나 나가나? (대략 시세 범위)

- Conley 4×5는 “모델명”, “벨로우즈(빛샘) 상태”,
“셔터 작동”, “렌즈 상태”, “후면(백) 규격 호환”, “구성
품(홀더/케이스)”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큼니다.

- 해외 시세는 달러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국내
는 희소/배송/관세/수리비가 반영되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4. 참고자료(출처 확인용 링크)

- https://en.wikipedia.org/wiki/Conley_camera_company
- https://camera-wiki.org/wiki/Conley_Camera_Company
- <https://collectiblend.com/Cameras/Conley/Conley.html>
- (한국 사진사/도입 관련 참고용) 국가기록원/박물관·학술자료 검색 권장:
<https://www.archives.go.kr>
<https://www.nfm.go.kr>

한국프로사진협회 발전기금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지만, 사진가의 길은 시간 위에 쌓입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지난 70여년 동안 모든 전문 사진가의 권익과 사진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울림이 되어, 사진시장의 미래를 밝힙니다.

발전기금은 협회의 재정운용과 교육, 전시 및 출판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보내실곳 : (농협은행) 301-0127-4083-41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를 후원해 주신 분 (단위 원)

김귀홍	100,000	김광수(강원앨범조합 이사장)	100,000
서호경	100,000	성철현(앨범연합회 회장)	200,000
신병호	100,000	권용옥	100,000
심준섭	100,000	김찬홍(경남앨범조합 이사장)	300,000
이승호	1,000,000	김현식(서울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이영익	100,000	박복근	200,000
이재범	100,000	박수열(경기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이한우	100,000	배계환(경북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장광동	100,000	육재원	100,000
조구성	100,000	장광동(충북앨범조합 이사장)	100,000
이재범	100,000	전씨 문중	100,000
		정옥기	200,000
		최영규(부산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The logo features a large green '70' with a circular emblem inside the '0' containing the KPPA logo and the text 'SINCE 1955'.

70년의 서터, 미래를 보다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 02-511-9904 | 고객센터 02-545-0004 | www.fomex.co.kr
0478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풀림테크원 7층



서울시우수기업



글로벌 경주기업



INNOBIZ
기술혁신진흥소기업